

호주, 2026 국가 방위 전략 발표 및 국방 투자 확대

'26.04.28(화), 멜버른무역관

□ 개요

- 호주 정부는 2026년 국가 방위 전략(National Defence Strategy, NDS)과 통합 투자 프로그램(Integrated Investment Program IIP)을 발표하고,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및 투자 확대 계획 발표
-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4,250억 호주달러 규모의 국방 투자를 통해 보다 자립적이고 통합된 군사력 구축을 추진할 계획

□ 상세내용

- 추진 배경
 -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은 전략적 경쟁 심화와 복합적인 안보 도전 과제 증가, 강압 및 무력 사용의 확대 등으로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,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방 전략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
 - 또한 인공지능(AI), 자율 시스템 등 첨단 기술 발전과 함께 전쟁 수행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,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및 역량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
- 핵심 전략 목표
 - 장기적으로 국방 자립도를 제고하고, 호주 내 주권적 방위 산업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외부 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추진
 - 호주 국방군(ADF)뿐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의 대비 태세와 회복력을 강화하여,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
 - 인도·태평양 지역 내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을 확대하여,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
- 투자 계획 및 주요 투자 내용
 - 해군 전력 중심의 군 구조 강화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수상 전력 확대를 추진하며, 보다 강력한 해상 통제 및 억제 능력을 확보할 계획

- 공군은 감시·정찰, 방공, 타격 및 수송 등 기본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, 무인항공 시스템과 원정 항공 작전 역량을 중심으로 관련 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
- 북부 지역 방어를 중심으로, 해상과 육지를 연계한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, 장거리 타격 능력과 통합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합동 전력 체계를 구축 예정
- 이와 함께 사이버 및 전자전 역량을 강화하여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에서의 생존성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, 우주 기반 감시·통신 역량을 통해 전장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

<주요 투자 분야 및 내용>

분야	향후 10년간 투자 금액	내용
해저전	940억~1,300억 호주달러	-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- 해저전 및 무인 해양 시스템 - 고스트 샤크 초대형 자율 수중 로봇 - 블루보틀 무인 수상함
해상전력(해상 봉쇄 및 통제)	620억~770억 호주달러	- 개량형 모가미급 다목적 호위함 - 헌터급 호위함 - 호바트급 구축함
해상 상륙 작전이 가능한 통합 지상 전투 체계	480억~590억 호주달러	- 무인 항공 및 지상 시스템과 대응 시스템 - 전투 정찰 차량 - 아파치 헬리콥터 - 블랙호크 헬리콥터
원정 항공 작전	340억~410억 호주달러	- 무인항공 시스템 - MQ-28A 고스트 배트 및 기타 - C-130J 헤라클레스
표적 획득 및 장거리 타격	280억~350억 호주달러	- 해상 및 지상 공격 사거리 증가 - 공중 기반 타격 능력 강화 - 극초음속 무기 및 표적 탐지, 타격 통합 체계 구축 추진
우주 및 사이버 보안	270억~380억 호주달러	- 사이버 역량과 다중궤도 위성 구축 - 우주 제어 및 센서, 통신 능력 - 전자전
유도 무기 및 폭발물	260억~360억 호주달러	- 유도 무기 비축량 확보 - 무기 생산, 유지, 수리 및 정비할 수 있는 주권적 역량

자료: 호주국방부

□ 무역관 의견

- 호주의 2026 국가 방위 전략은 해저전, 장거리 타격, 무인·자율 시스템, 우주·사이버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투자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
- 특히 2026 통합 투자 계획(IPP)에 따라 향후 4년간 140억 호주달러, 10년간 530억 호주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가 반영되었으며, 2033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약 3%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중장기 국방 투자 확대 기조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음
- 또한 호주가 방산 자립 및 주권 산업 기반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, 현지 생산·기술 이전·공동 생산 등 요구 조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, 향후 협력 구조는 단순 수출보다 현지 파트너십 기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
- 한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방산 구조가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부품, 소프트웨어, 센서,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기술 등에서의 수요 확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□ 정보원 및 일자

- * 2026년 4월 16일, 호주 국방부(<https://www.defence.gov.au/about/strategic-planning/2026-national-defence-strategy-2026-integrated-investment-program>)
- * 2026년 4월 16일, 호주 국방부(<https://www.minister.defence.gov.au/media-releases/2026-04-16/2026-national-defence-strategy-integrated-investment-program>)